#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거돈사지
흥법사지
법천사지

## 원주시 71억여원 예산 복원추진

# 중·원·불·교 제2의 중흥

◇법천사지에는 깨진 용두, 조화이 맞지 않는 불두와 불신 · 광배, 탑 · 부도 · 석등 부재 등 방대한 석조물이 모여있다.

역사를 담고 남한강은 흘러간다. 도도히 흐르는 남한강 줄기를 따라 좌우로 크고 작은 사지들이 걸쳐져, 1천여년전 불공을 드리러 뱃길을 이용했던 지극한 불심들이 눈에 띈다. 강줄기를 따라 강원도 거돈사 흥법사 법천사가 그 터만 남은 채 역사를 말하고 있고, 이 강물은 경기도 신륵사에 가 닿는다. 원주지역의 3대 폐사지 거돈사지 · 흥법사지 · 법천사지가 원주시와 정부의 주도하에 2002년까지 일제히 정비된다. 남한강변을 끼고 조성된 이 세 사찰은 강원도지역 불교문화의 중심지이자 원공국사 진공왕사 지광국사 등의 활동으로 고려불교의 중추 역할을 했으나 임진왜란 등으로 폐사된 채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불법을 가슴에 품고 고이 묻혀 5백여년이 넘는 세월을 참묵하고 있던 사지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시절 인연을 맞게 된 것이다.

원주시는 중원문화권 정비사업의 하나로 거돈사지 · 흥법사지 · 법천사지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고, 훼손된 불교유적을 복원정비해 고려불교의 외형은 물론 정신적 지주였던 원공 진공 지광 등 세 스님의 사상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돈사지에는 17억 5천만원을, 흥법사지에는 16억 5천만원을, 법천사지에는 37억 9천6백만원을 투입, 사지정비를 시작했고 연차적으로 유적관 건립사업도 벌여 광관자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원주시는 95년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인 국보급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운동을 펴고 있다. 2002년 사지 정비가 끝나는대로 문화재 반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불교계에서도 동참하고 있는 운동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은 거돈사지 원공국사 승묘탑(보물 제190호), 흥법사지 진공대사 부도(보물 제365호),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국보 제101호) 등이다.

### 거돈사

통일신라 때 창건된 천년고찰. 고려초 원공국사(930~1018)가 주석하면서 크게 융성했다. 원공국사는 중국 천태종의 근본도량 국청사에서 천태종지를 가르치는등 고려 초기의 천태학을 계승한 학승이다. 68년 2만4천7백86㎡의 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돈사지는 82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지금은 금당지 기단공사와 강당지 후면 석축공사 등 대대적인 기단 복원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절터에는 최충이 비문을 지은 원공국사 승묘탑비(보물 78호)와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3층석탑(보물 750호)이 남아 있다. 원주시는 지난 8월말 절터 왼쪽 1만㎡ 정도의 농경지에서 석축이 잇따라 발견돼 현지실사를 거쳐 문화재관리국에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지정된 구역에서도 도로공사가 한창이고 사지 앞 계곡에는 20여년 가까운 세월동안 거돈사지 것으로 추정되는 당간지주가 한쪽만 외로이 늘 혀진채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거돈사지는 지난 81년부터 91년까지 한림대박물관이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벌여 고려시대 와당류, 석조물 등 2백여점의 유물을 발굴, 보관하고 있으며 유적관이 건립되면 옮겨 전시할 예정이다.

### 흥법사

고려 태조 왕건이 진공대사(869~940)를 왕사로 임명하고 머물도록 하기 위해 창건했던 고려불교의 실질적인 발원지. 절터가 약 1만여평에 이르렀다는 설로도 그 규모의 거대함을 짐작케 하는 사찰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폐사된 것으로 보이는 절터에서는 여러 가지 와당, 작은 탑, 코끼리, 사자 등의 토우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명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남한강의 한 지류 섬강이 내려다보이는 너른 터에 자리한 흥법사는 터의 대부분이 사유지화된 채 삼층석탑과 진공대사 탑비의 귀부와 이수 그리고 약간의 석재들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공대사 탑비(보물 제 463호)의 비신은 중간부분이 없어진 채 깨어진 조각 4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사지엔 귀부와 이수만이 남아있다. 비문은 태조가 직접 지었다고 전하는데 이러한 사실로 진공대사가 고려 초기에 끼쳤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고려를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영광은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고 흥법사지에는 고구마 줄기만이 무성하다. 흥법사지는 올해부터 토지매입과 사지정비에 들어갔으나 남아있는 삼층석탑은 70년대 당시 무리한 개보수로 상대 갑석이 부서지는등 많이 손상되어 있다. 특히 보물로 지정된 진공대사 탑비 가운데 사지에 남아 있는 귀부와 이수는 바로 뒤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 귀부가 비스듬하게 기울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탑과 비 사이에도 밭이 있는 등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 법천사

통일신라 성덕왕 때 창건되어 고려 문종조 지광국사(984~1067) 때에 이르러 대찰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진리가 샘물처럼 솟는다는 뜻을 가진 법천사지는 사역의 대부분에 농가가 들어서 있는데 99년부터 농가 철거와 함께 사지 정비작업에 들어간다. 너른 밭을 중심에 두고 외곽으로 자리잡고 있는 마을 전체가 절터였고 현재 마을도 법천리라 불리우고 있어 거대한 규모의 사찰이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흥법사지와 마찬가지로 사지는 부도가 있어 부도전이라 추정되는 건물터와 당간지주 만이 확인될 뿐 모두 농가와 밭으로 변해있다. 사지에서 중요한 부조물이었을 석조물들은 민가의 절구통이나 물통으로 변신해 있고 반쯤 부서진 하마비는 농가 헛간에 사료비닐로 덮힌 채 묻혀있다.

우리나라 부도비 중 가장 화려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현묘탑비(국보 제59호)는 고려의 정신적 지주로 모셔졌던 지광국사에 대한 제자들의 정성이 곳곳에 배어있다. 비신 바깥쪽으로 보상당초문을 조각하고 비신의 맨 위에는 계수나무 밑의 토끼, 발이 셋달린 새를 새겨 달과 해를 상징하는 문양이 있다. 그 주위로는 산과 구름 비천 봉황 등이 새겨져 있어 매우 섬세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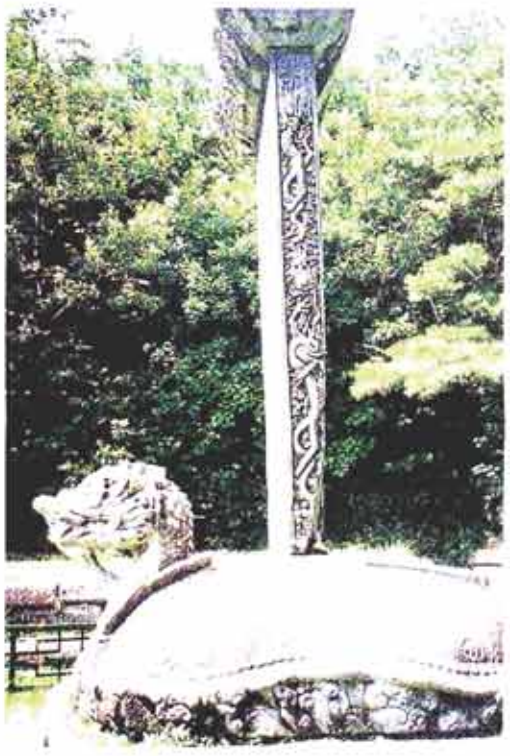
고려 불교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찰 거돈사 흥법사 법천사가 후손들의 복원에 힘입어 제 모습을 찾으려 하고 있다. 원주지역의 세 거찰이 복원되면 중원 문화의 사상적 핵심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인해 제2의 중원불교 중흥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글=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거돈사
**원공국사 주석 때 융성**
**농경지서 석축 잇단 발견**

흥법사
**고려불교 실질적 발원지**
**절터 1만여평 설도**

법천사
**법천리 마을 전체가 절터**
**지광국사 현묘탑비 '성세'**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비의 측면돈 구슬을 사이에 두고 서로 희롱하는 두 마리의 용을 깊게 새겨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법천사지 민가에서 절구통으로 사용되는 유물.

## "3대 사지복원은 지역문화발전 초석"

사지복원 관심갖는 함종한의원(한나라당 불자회 회장)

"원주지역에 있는 거돈사지 흥법사지 법천사지 등 세 곳은 모두 고려불교 중흥의 기반이 되었던 곳으로 선·천태·유식사상이 숨쉬고 있는 역사적인 민족문화 현장입니다. 이렇게 불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들 사지 복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원주지역 토박이 의원으로 한나라당 불자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함종한의원(54)은 사지 복원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로라 하는 불자인 그는 원주시내 3대 사지 복원으로 지역문화의 사상적 구심점을 삼아야 한다고 뜻을 폈다.

"사지 대부분이 사유지화 되어 있는 흥법사지의 경우 상태가 가장 심각해요. 뒷편으로 영봉산 자락이 있고 앞쪽으로는 남한강의 한 지류인 섬강이 흐르는 곳까지 모두 흥법사 사역이었다고 전할 만큼 거대한 사찰이었을 흥법사라든가 법천사가 후대의 무관심 속에 외면되고 있었던 것을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그는 지역 불자를 중심으로한 불교계의 관심을 거듭 호소하면서 이 사지의 역사성 상징성에 걸맞는 정부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당지 석축공사가 한창인 거돈사지.

◇흥법사지 3층석탑의 좌우로는 옥수수밭과 고구마밭이 들어서 있는등 보존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